

<2021년 2월 9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잃은 양을 찾으라. 잃은 생명을 찾으라. 자기가 할 일들을 어서 찾으라.
2. 말씀을 세밀히, 잘 들어야 된다. 주가 말씀을 해주셔도 듣는 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생활>을 해야 빨리 깨닫는다. 잃은 양을 찾으라 하면 찾는 자만 말씀을 더 깨닫고 알 것이다.
3. <잃은 양을 찾으라>는 비유는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생명>을 찾으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양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확실히 아나, 양을 쳐보지 못해 비유를 들어도 실감이 안 나는 자들도 양을 잃어버리고 찾는 목자를 보고, 또 안 찾으니 이리와 사자들이 양을 잡아먹는 것을 보고 안다. 또한 그러한 환경 속에 처해봐서 알 수 있다.
4. <잃은 양을 찾으라>는 비유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잃어버려서 찾는 심정, 사귀던 애인을 잃어서 다시 찾거나, 물건이나 귀한 것,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직장을 찾듯 자기가 원하던 것을 찾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5. 찾아야 할 것을 안 찾으면 팔자가 안 피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
6. 지금은 <자기 머릿속에서 잊은 말씀>을 찾고, 잊어선 안 될 것들을 다시 찾는 기간을 준 것이니, 이 기간에 여러 가지를 꼭 생각하며 이 말씀을 소홀이 여기면 안 된다.
7. <주일말씀>을 듣고 행하면 해결되지만, 행하지 않으면 1년 내내 허공치고 맨날 애타게 된다. 말씀은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행하느

냐에 따라 좌우된다.

8.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아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9. 잃은 양을 찾는 자는 <주인>이기 때문에 찾는다. 머리에 잊은 것을 찾는 것도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찾는 것이다.
10. 찾는 자는 <주인>이라 찾는 것이다. 혹여 다른 자가 찾아가도 주인이 근거를 밝히면서 ‘내 것이다.’ 하면 찾아 올 수 있다. 그러나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못 찾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찾아 달라.’ 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신다.
11. 사탄 것은 사탄의 것이기에 우리가 찾아올 수 없다. 그러나 성경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찾았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함으로써, 절대신 성부, 성자, 성령을 믿으면서 주를 메시아로 믿으면서 찾는 것이다.
12. (하나님) 안 찾는 자는 주인이 아니고 샅꾼 목자다. 샅꾼이라 안 찾는다.
13. 샅꾼은 샅만 받고 끝나는 사람이기에 찾지 않는다. 섭리사에 샅꾼 목자는 쓰면 안 된다. <샅꾼 목자>는 자기도 모르게 샅꾼 목자가 된다. 잃은 양을 찾지 않으면 샅꾼 목자다.
14. 잃은 양을 보고서 ‘자기 책임분담을 못 했네’, ‘말씀을 해도 안 됐네.’ 이런 것도 있지만 최대한 계속해서 찾았어야 했다.

있는 사람만 데리고 하면 안 된다.

15. <잃은 것>을 자꾸 보고, 찾고, 생각해야 한다.

16. 목회하는 자들은 특히 잃은 양을 생각해야 한다. 전체 숫자를 항상 세어보며 자기 분야, 자기 주관권에 있는 사람이 계속 있는지, 계속 세어봐야 된다.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백 마리 양을 기르는지, 백 오십 마리를 기르는지 잘 모른다. 이들은 숫자에 어두한 사람이고, 소경들이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도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말씀 하신다. “그동안 잃은 양을 안 찾은 자는 샅쨌 식 목자였기 때문에 급여나 받고 끝난 자들이다. 자기 양으로 생각하고 찾아야 샅쨌 목자를 면한다.”

18. 선생은 말씀을 선포하기 전 주일부터 이미 행해서 30~40명을 돌아오게 했다. 선생이 찾은 자들을 보니 정말 빨리 찾아야 됴을 깨달았다. 선생이 보니 이리와 사자가 잃은 양을 움켜쥐려고 막 쫓아다녔다. 이리와 사자에게 쫓기는 양은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주인을 찾고 있었다. 양이 높은 언덕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있었는데 목자가 쫓아가서 이리를 막고, 언덕에서 뛰어내리지 말라고 잡아당기고 구했다. 근본을 보면 <이리>는 ‘사탄과 악한 자’이고, <높은 언덕>은 ‘죽음’을 말한 것이다.

19. 잃은 양은 잘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생명들이었으나, 세상의 어둠과 고통 세계에서 염려하다 보니, 열심히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사탄의 침범으로 잊어버리게 됐다. 선생이 이들을 위로하고,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며 잡아주고 대화해주었다. 그들이 너무 무서움을 타기에 ‘사탄 전멸’을 써주며, 절대 천군들을 배치시켰다. 그리고 “늘 잡아줄게. 내가 있으니

까 기도하자.” 하였다. 이와 같이 자꾸 찾아야 한다.

20. 잃은 자 중 어떤 자는 교회도 안 나오고, 모바일 예배, 새벽예배도 바쁘기에 가끔 한 번씩만 보고 자꾸 안 드리고 있었다. 선생이 그를 찾아서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아주 위험한 장소에 가고 있다. 세상에서는 즐겁고 기쁨으로 하지만 안 된다.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어명이 떨어졌다. 이를 전한다.” 말했더니, 정식으로 잘 하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잃은 길을 찾게 해주고, 잃은 양, 비활성인 자들을 더욱 찾았다.
21. “순간의 기회를 너는 놓치지 말아라.” 이 노래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일주일동안 특별히 말씀해주셨다.
22. 1년을 주로 따지면 50주다. 하나님께서는 50주 동안에 50가지는 말씀하는데, 그때마다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
23. 월명동에서 조경 작업을 하는데, “야! 저기 가 봐!” 해서 그 순간 쫓아갔을 때, 그 때에 5~6명의 목숨을 구했다. 큰 돌이 떨어지기 직전, 돌을 묶었던 줄이 풀리고 있었는데 몰랐다. 선생이 일하는 자들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신의 소리를 전한 것이다. 일하는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안 나왔으면 그냥 그대로 33톤의 큰 돌이 떨어져서 죽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잃은 양 말씀은 “빨리 잃은 양 찾아라! 안 찾으면 큰일 난다!” 하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것이다.
24. 말씀을 잊지 말고, 잘 듣고 행해야 한다. 말씀은 능력이요, 힘이요, 권능이니 이런 말씀을 확확 안 받아들이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25. 주가 전하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아들이고 행해야 힘이 난다. 능력이 있으니 불이 오는, 그 순간의 말씀들이다.
26. 잃은 양을 찾는 자는, 이왕 찾을 바에 한 마리뿐만 아니라 많은 양들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 새로운 자들, 천년역사를 참여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시니 그것 먼저 하라. 그러면 많은 생명들을 들여보내고 찾아올 기회를 줄 것이다.
27. 하나님의 철장 같은 말씀을 그대로 진행하면 일사천리로 100% 된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순서 있게 하자고 하시기에, 금년도는 순서 있게 행해야 한다.
28. 금년도에는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며 하나님 영광의 날에 말씀을 선포했다. 그 때 가장 강조한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빨리 깨달아라. 온전히 깨달아라. 알고도 시원찮게 하면 안 된다.” 그 후 “기도 하라.” 하며 기도를 선포했다. 그 다음에 기도하니 “잃은 양을 빨리 찾으라.”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순서들이다. 이제 잃은 양을 찾으면 새롭게 하는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줄 것이다.
29. 먼저는 잃은 것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는 번창 시키고 많이 확장 시켜야 한다. 지금은 새롭게 할 때다.
30. 잊은 것이나 잃은 양은 자기만 안다. 자기가 기르고 키우는 자는 자기가 안다. 악착같이 찾아야 한다. 잃은 양을 찾는데 무서워하면 찾지를 못한다.
31. 선생이 월남에 있을 때도 적들을 찾았다. 적은 숨어있을 때 탁하고 금방 쏘버리니 군인들이 찾고 다닌다. 적을 찾아야 된다. 자기 머릿속에서 적을 잊으면 안 된다. 사탄, 흑암, 유혹자, 악

평자, 적을 잊으면 자기가 당하게 된다.

32.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벽예배 잃은 자, 새벽예배 참석을 잃은 자들도 잃은 양이다.” 하셨다. 이들은 서서히 주관권 바깥으로 벗어난다. 말씀을 못 들으니 힘이 없기 때문이다. 고로 새벽예배에 꼭 참석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곤란하다고 봐두면 안 된다. 그러다 나중에는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니 선생님의 말씀이 왔다고 하며 꼭 참여시켜야 한다.
33. 선생은 새벽예배를 거의 60~65년 동안 드리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번창한 역사를 이룬 것이다. 하나님은 새벽에 귀한 말씀을 하시니 모두 새벽예배에 꼭 참석해야 한다.
34. 선생은 밤이 늦도록 산과 들과 야수들 속을 누비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성령께 걱정했다. 성령님께 꼭 깨워달라고 해서 간신히 일어났다. 이와 같이 모두 같이 해야 목자가 된다. 자기 주관권을 100% 해야 한다. 안 하면 모두 금년도에 문제가 일어난다.
35. 선생이 며칠 전에는 학생 때 섭리에 왔다 안 나오는 자에게 약 20년 만에 전화를 했다. 그래서 선생이 “내가 좋아서 전화한다. 신앙은 둘째 치고 이야기 하자.” 고 했다. 그래서 반갑다 하며 “학생 때 만난 기억이 나네.” 그랬다. 대개 보면 초창기 때 말씀을 확실하게 못 배웠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 환난기 때라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다. 전쟁이 막 일어날 때는 제대로 훈련을 할 수가 없고, 제대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받고 무서워서 나가고, 싸울 줄 모르니까 나간 일들이 많았다.
36. 잃은 양을 찾을 때는 절대로 양과 싸우면 안 된다. “어디 갔었냐, 왜 나를 이렇게 험하게 만들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반가워서 이끌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리고 와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해야지,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며 가다보면 앞의 줄을 잃어버리니 맨 뒤의 양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것은 그 후에 얘기 할 문제고, 처음에는 만났을 때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해야 된다. 양이 심통을 낸다고 해서 목자도 같이 소리 지르면 안 된다.

37. 잃은 양을 찾을 때는 끝까지 반가워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막 희망을 주며 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찾는 법칙이 있다.
38. 사울은 처음에 잃은 염소를 찾다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잃은 염소를 같이 찾았고, 그 때가 계기가 되어서 사무엘은 ‘이 사람은 그냥 염소 치는 염소 목자로써는 아깝다. 풍채를 보니 멋있다.’ 하고 인식하게 되었다. 사울은 그로 인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39. 사울이 잃은 염소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난 것처럼, 잃은 양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40. 요셉은 양을 쳤고, 야곱도 모세도 양을 쳤다. 그러나 사울은 염소를 쳤다. 사울의 적성, 성격과 맞았기에 염소를 친 것이다. 결국 사울에게 염소 같은 마음이 생겼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사울은 하나님과 사무엘의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며 염소 짓을 하였다. 사울이 염소 같은 짓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간혹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 순종을 안 하고, 꼭 어떤 일을 놓고 의논을 하면 꼭 돌리는 일을 하고, 그렇게 염소 짓을 한 것이다.
41. 염소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

며 후회하니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말아라. 후회할 것도 없다. 사울에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라.” 하시며 다른 자를 딱 세워 났다. 하나님은 얼마 안 있다가 다윗 왕을 길러서 세우셨다. 그 후에 다윗이 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이기니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 이로다.” 하며 외쳤다. 말 안 듣는 사울에게는 결국 비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 42. 잃은 양을 찾을 때 100% 좋은 기회가 생긴다. 꼭 찾아야 된다.
- 43.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이 네 양이다. 내 양을 부지런히 치고 관리하라.” 하셨다.
- 44. 자기 주관권 양은 자기 양이니 매일 적극적으로 하라. 이것이 금년도 새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금년도의 말씀 실천은 <기도>와 <잃은 양 찾기>다.
- 45. 잃은 양을 찾았으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행해야 한다. 찾으면 상금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다. 추수 때에 추수를 하면 그것이 상금이다. 추수를 하면 그 다음에 선교의 문이 열리고, 사탄과 이리를 없애는 역사가 일어난다.
- 46. 잃은 양을 찾았으면 그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 관리하고 같이 먹고 마시며 잡아줘야 된다.
- 47. 이 기간에 잃은 양을 못 찾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잊지 않으실까 걱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잊지 않고 하니 나도 너희를 잊지 않고 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다. 빨리 자기 살리기, 생명들 이끌어내기다. 모두 이 때, 이 기간에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된다.

48. 명절 때 가서도 말을 잘 해야 한다. 얘기를 할 때, 어떤 것은 떠보다가 서서히 해야 한다. “참 내가 겪어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와주셨다. 엄마도 기도하고 모두 기도하자. 내가, 또 우리 집이 무슨 뻥이 있겠냐? 정치인도 법관원도 세상의 재벌가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밖에 없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며 이렇게 됐다.” 이같이 말하면서 서로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역사를 하신다.

49. 모두 형제들과 자꾸 가까워야 된다. 선생의 형제들도 자꾸 다르게 얘기해주고 하니, 그 말을 듣고 결국 나를 쳐다봐주고, 선생이 풀어주니 다 풀렸다. 그와 같이 모두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 피하면 샅꾼 목자다. 샅꾼 목자는 하나님 앞에 싸가지가 없다. 무서워하고 자꾸 피하지 말고 행하라.

50.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된다. 흐트러지지 말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한다.